

2018년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 **방향** 프로젝트

청소년의 일과 삶!
지역에서 내_일을 그리다

우린 다르게 가기로 했다

주관 **고산고 YMCA**

지원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YMCA** 전주 **YMCA**

목차

참가자이야기	3
동아리 소개	5
역할과 구성	6
찾아가는 활동	
1) 소정, 준형: DMZ	7
2) 미지, 형택: 제주 4.3	14
3) 혜원, 영주: 광주 민주화 운동	22
4) 수현, 정인: 전주 관통로 촛불집회	33

“ 임소정 고산고YMCA 동아리 대표

고산고등학교 2학년 임소정입니다. 여러 번의 회의 끝에 드디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과정이 순탄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고있다는 것이 고맙고 뿌듯하다. 이 책자가 의도대로 좋은 곳에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



이수현 고산고YMCA

나는 완주에서 태어나서 5살까지는 봉동, 그 후로는 쪽 고산에 살고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고산에서 나왔고 현재 고산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다. 처음에는 솔직히 흐지부지 될 뻔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다들 열심히 해보기로 마음먹었고, 시험기간이 겹쳐서 좀 늦어진 감은 있지만 정말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하다. 결과물의 퀄리티나 수준을 떠나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이 좋다.

”

“ 이혜원 고산고YMCA

지금 고산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이혜원입니다. 책자를 만드는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언가 해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다. 우리가 만든 책자가 의도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오형택 고산고YMCA

내 이름은 오형택, 제2의 에릭 클랩튼이 될거야. 책자를 만들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야하는 일이니 열심히 참여했다. 완성될 책자를 생각하니 뿌듯하다.

”

참여자 이야기

“

김영주 고산고YMCA

2001년 12월 26일에 태어난 김영주입니다.
책자에 실릴 내용을 직접 조사해보니 전에 알고있던것 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런 기회를 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정인 고산고YMCA

운동을 좋아하는 김정인입니다
친구들과 이런 활동을 해본게 처음이었는데 특히 제가 맡은 전주 풋볼 집회에 대한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해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

“

손미지 고산고YMCA

살면서 이런 경험하기 쉽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게 되어서 뜻깊고 새롭다.



김준형 고산고YMCA

2001년 6월 27일에 태어났다.
나는 11살에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와서 전에 경험해 보지못했던 많은 활동 들을 할수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번에는 자그만한 책을 만들게 되어서 너무기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수있게된다면 좋을 것 같다.

”



동아리 만든 이유

여행이라는 공통 주제를 갖고 모였지만 갈수록 이 의미가 불투명해져 그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행의 의미도 살리고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여행 안내 책자를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이 책자를 만들며 스스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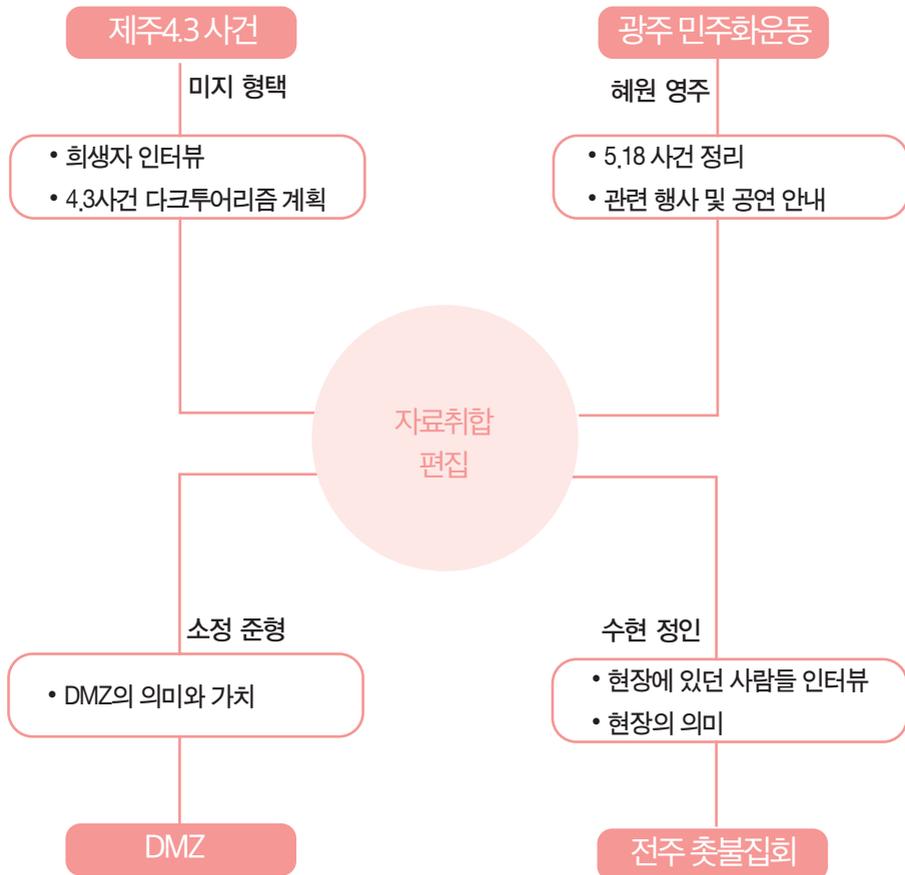
프로젝트 목적

- 「우린 다르게 가기로 했다」
-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었다.
-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 고산의 중고등학생들에게
- 더 재미있고 의미있는 여행이자 체험학습이 되기를 바란다.

멤버

임소정 오형택 이수현 김영주 김정인 김준형 이혜원 손미지

구성과 역할담당



찾아가는 활동 1

DMZ



DMZ 푸른 숲과 철조망

DMZ란?

DMZ란 demilitarized zone의 줄임말로 비무장지대라는 뜻입니다. 비무장지대는 나라간의 약속으로 군대나 무기를 배치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DMZ는 6.25전쟁이 일어나고 1953년 7월 27일 전쟁을 멈추는 협정과 함께 생겨났고 북쪽의 경기도 김포, 파주, 강원도 철원 등 15개의 시군에 속해있습니다. DMZ는 남북 분단의 상징이었지만 요즘에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DMZ가 2019년 중에 철수된다고 합니다. 철수되기 전 꼭 한번쯤 찾아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DMZ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의미

1. 1953년 이후로 약 50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자연에는 외국에서 온 동물들이 있는데 이런 동물들이 없는 우리나라의 순수한 자연 그대로인 생태계 연구가 가능합니다.
3. 지금 한반도에서 사라진 생물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환경오염이 없어서 자연 그대로의 진화가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DMZ 평화기행

DMZ를 보러갈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1 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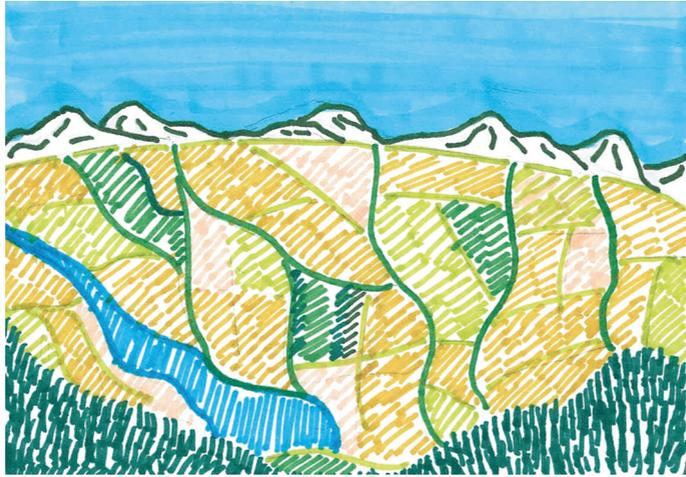
철원은 한국전쟁의 흔적이 또렷이 남아 있는 땅이다.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은 평화전망대나 제2땅굴 같은 안보 관광지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대열에 이름을 올릴 만하다. 해발 362m의 작은 산은 남한 땅과 북한 땅을 가득 품는다. 소이산은 한국전쟁 후 60여년 동안 민간인통제구역이었다. 2010년에 통제구역에서 해제된 뒤에도 지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었다. 그동안 전쟁의 폭격에 황폐해진 산은 스스로를 치유했고,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자연은 원시림 같은 울창함을 되찾았다. 그러던 2012년, 철원군과 육군부대가 힘을 합쳐 4.8km 길이의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을 열었다. 길 끝에서 바라보는 북녘 땅은 자연스레 통일의 꿈을 꾸게 한다. 숲길이 주는 미덕도 빼놓을 수 없다. 녹진한 풀향을 맡고 묵은 낙엽을 밟으며 자연이 낸 길을 따른다. 시간에 맞춰 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대개의 안보관광지와 달리, 이곳에선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고 바라보고 싶은 만큼 바라볼 수 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국경선 평화학교 대표 정지석 박사님의 안내

① 국경선 평화학교

평화 활동가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 곳의 교수님께 평화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곳에 찾아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평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철원 소이산에서 내려본 철원평야와 피의능선

② 소이산

소이산은 미군 막사가 있었던 곳이라 올라다가보면 남은 건물의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철원의 넓은 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지뢰밭이 지킨 평화의 숲'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이산은 전쟁 후 지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탓에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 끝을 알 수 없이 광활한 평강고원 너머 북한의 산 능선이 흐릿흐릿하게 이어진다. 예쁜 꽃도 아니고 눈부신 일몰도 아니지만 그리운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염없이 바라보고픈 풍경이다. 소이산에 다녀간 이들의 메시지가 전망대 앞 바줄에 묶여 바람에 나부낀다. "동생과 제가 싸우지 않도록 평화를 주세요.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세요." 한 아이에게는 동생과 싸우지 않는 것이 평화다. 한 국가에는 갈라진 두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 평화다. '평화'라는 거창한 단어를 울조리게 되는 곳, '통일'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돌아보게 되는 곳, 이곳은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이다. (출처: 서울신문)



소이산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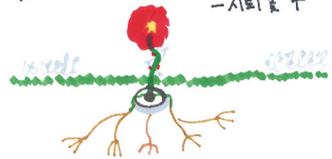
찾아가는 활동1



노동당사

지뢰꽃

저 꽃의 씨앗들은 어떤 지리
위에서 뿌리 내리고
가시철망에 찢긴 가슴으로
꽃을 피워야 하는 건가?
-지뢰꽃 중-



지뢰꽃 시화전

③ 노동 당사

이 지역이 북한 땅이었을 적에 전 북한에 의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6.25 전쟁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끌려와 고문을 당했던 장소입니다. 현재는 다 무너져서 기본적인 골격만 남았고 총자국과 그을린 흔적으로 6.25 전쟁의 안타까움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노동당사 앞에 전시되어 있는 시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전쟁의 흔적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2 고개 들면 개성과 송악산이 보이는 곳 강화도 교동도

강화도 북서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면 양사면과 내가면이 있고, 남쪽으로는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가 있다. 북쪽으로 불과 2~3km의 바다를 끼고 황해도 연백군이 있다. 따라서 섬 북부에서는 황해도 땅을 쉽게 바라볼 수 있으며, 좀 높은 곳에서는 예성강 하구를 볼 수 있고, 맑은 날에는 개성 송악산도 바라볼 수 있어, 실향민들이 화개산 산정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망향제를 지내는 곳이기도 하다.

인구는 광복 당시 8,644명이었던 것이 6·25전쟁 뒤 많은 피난민으로 1965년에는 1만2443명에 달해 최고를 이루었다. 그러나 1972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1977년부터 감소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6·25전쟁 이전에는 4개의 정기연락선이 있어 육지와 서해도서가 자유롭게 연락되었으나, 전쟁 이후 매우 불편해졌다. 그러나 서울과의 연결은 강화도 창후리에서 수시로 배가 있었고, 연안도서를 연락하는 선편이 있었으나 불편한 편이었다. 2014년 교동대교가 완



대룡시장

공되어 강화도와 연결되었고,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해졌다.

① 대룡시장

강화도에서 차를 타고 교동도로 들어가면 대룡 시장이 있습니다. 대룡 시장은 6.25전쟁 때 교동도로 피난 온 사람들이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자 생계를 위해 만들어진 시장인데요, 약 50년간 교동도의 경제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옛날 70년대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활동 1



망향전망대에서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마을

② 강화 교동 망향대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전망대는 철책과 맞닿아 있는 곳들이라 전망대에 올라간다고 해도 상대방 초소나 황량한 산맥 정도만 볼수있는게 대부분입니다. 진자 북한을 보고싶은때는 강화 교동도의 망향대를 추천드린다. 섬 입구에서 간단한 검문을 받아야 하지만 별 어려움없이 들어갈 수 있으며 오래된 섬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남아있다.

교동도 망향대는 섬의 맨 위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손에 벌리면 고향산천이 잡힐 듯 직선거리로 3KM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있어 북에서 피난온 주민들이 머지않아 다시 돌아갈 희망을 품고 고향에 남아있는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던 장소이다.

3 평화누리길

평화누리길이란 2016년 경기도 김포에서 연천까지 DMZ 주변에 만들어진 도보 여행길입니다. 총 182.3km로 지역별로 김포시 3개코스, 고양시 2개 코스, 파주시 4개코스, 연천군 3개 코스로 총 12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걷기 행사도 열리고 자전거로 다닐 수도 있으니 가족끼리 건강도 챙길겸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진각 전망대



자유의 다리



평화의 종



평화누리공원

① 임진각

3만평 규모에 임진각 전망대, 자유의 다리, 평화의 종, 평화누리공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가족들과 함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여행할 수 있는 대표 관광지입니다.

임진각 3층에는 전망대가 있어 임진강과 자유의 다리 일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으며, 임진강 남쪽에는 반공전시관 · 임진각지역전적비 · 미군참전기념비 등이 자리잡은 통일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근에는 통일로와 나란히 달리던 경의선이 끊어져 있고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977년부터 매년 연초에 연시제, 추석에 망향제를 올리며, 그밖에도 북한에 제신 부모님을 경모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② 반구정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190

반구정은 평화누리길 7코스의 끝이자 8코스의 시작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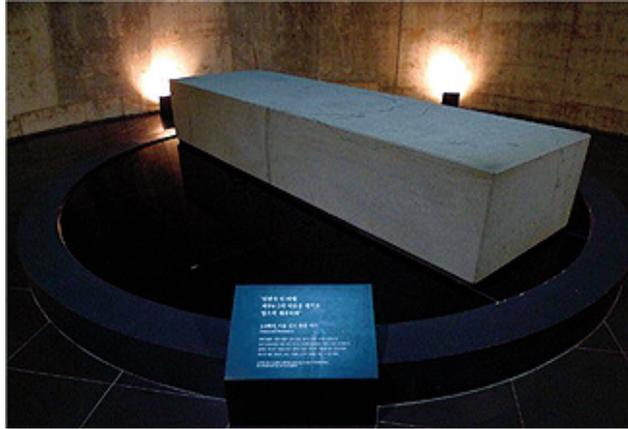
황희가 노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파주로 와서 임진강이 한눈에 굽어보이는 강변 솔밭 동산에 이정자를 짓고 갈매기가 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문을 즐겼다는 곳입니다.



한국전쟁때 불타버린 것을 황희의 후손들이 복구하였고 1967년 6월 옛 모습으로 개축하였습니다. 문산의 임진강변에 자리하여 늦은 오후에 앉아있으면 반짝이는 널찍한 모래톱과 물결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맑은날에는 멀리 개성의 송악산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활동 2

제주 4.3



4.3 백비, 이름 짓지 못한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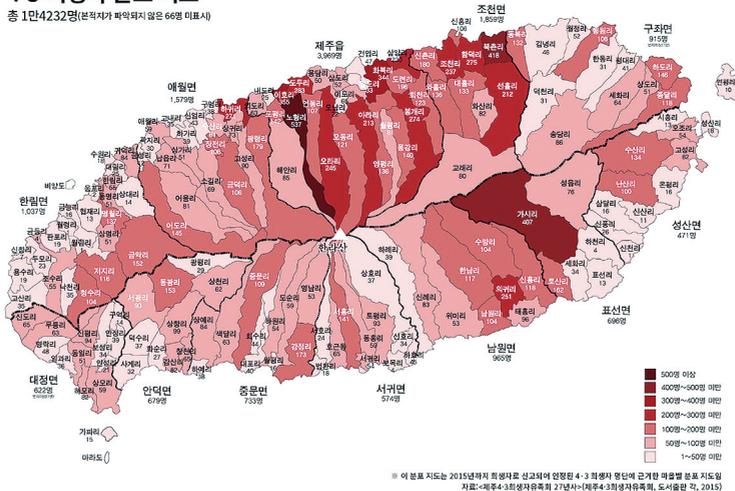
"언젠가 이 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백비(白碑) 어떤 이유가 있어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말한다.

'봉기, 항쟁, 폭동, 사태, 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4.3'은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역사적인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백비에 글씨가 새겨질 날이 왔으면 좋겠다.

4·3 희생자 분포 지도

총 1만4232명(본지지가 파악되지 않은 66명 제외)



※ 이 분포 지도는 2015년까지 희생자로 신고되어 인정된 4·3 희생자 명단에 근거한 미흡할 분포 지도임
자료-제주4·3희생자유족회 2명사>제주4·3희생자유족회, 도서출판 각, 2015

제주도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 기마경찰의 발에 치여 한 아이가 부상을 입자 제주 민중들이 그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다. 경찰측이 경찰서 습격으로 간주하고 발포해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제주 3.1절 발포 사건). 이후 경찰이 통행금지령을 내리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남조선노동당이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봉기를 기점으로 무장대와 진압군의 갈등이 계속돼 11월 17일 제주도에 “해안선 5KM 밖 모든 사람들은 폭도로 간주한다.”는 소개령이 떨어졌다. 이후 진압군은 강경 토벌 작전을 벌였는데, 토벌 작전 전까지 약 1000명 미만이 사망했으나 토벌 작전 기간부터 4.3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어도 2만 5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고한 도민들은 토벌대, 경찰, 무장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중간산 마을 95%가 방화돼 갈 곳 없는 도민들이 산으로 들어가는 일이 빈번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제주도 4.3 사건이란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사건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력충돌과 막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일어난 시기와 주요 사건

- 1947.3 31 경찰 총격 사건
- 1947.3 3.10 총파업
- 1948.4 4.3 무장봉기
- 1948.4 경비대-무장대 평화협상
- 1948.5 오라리 방화사건
- 1948.5 5.10선거, 제주도는 무효처리 됐다.
- 1948.5 제주지구 사령관 브라운대령 임명
- 1948.6 박진경 연대장 사망
- 1948.8 대한민국 정부수립
- 1948.9 북한 공산주의 정부수립
- 1948.10 제주도 경비사령부 수립
- 1948.11 제주도 계엄령선포, 초토화작전 개시
- 1949.1 북촌주민 학살사건
- 1949.3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설치
- 1949.5 제주도 국회의원 재선거
- 1949.6 무장대 총책 이덕구 사살, 무장대 해체
- 1950.6 6.25 전쟁 발발
- 1954.9 한라산 금족지역 해제

1 제주 4.3유적지

① 너븐숭이 4.3 기념관 - 제주시 조천읍 북촌3길 3

너븐숭이 4.3기념관에서는 4.3사건의 시작점과 변화 과정 그리고 이후의 모습들까지 알아볼 수 있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4.3 희생자들의 명단을 볼 수 있는데, 천장 높이만큼이나 많은 이의 희생자 이름이 적혀 있다. 4.3 북촌 영상물과 같이 남아있는 많은 자료들과 그림, 사진을 보며 다시 한 번 가슴 아픈 그날을 기억할 수 있다.



너븐숭이

② 순이삼촌 비와 방사 탑

순이삼촌은 제주 4.3사건을 세상에 알린 문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설이다.

소설가 현기영은 소설 순이 삼촌을 통해 4.3사건의 안타까운 후유증을 표현하고 오랫동안 묻혀 있는 사건의 진실을 문학을 통해 세상에 알렸다.

지난 2008년 정부에서 옴팡 밭 땅에 순이 삼촌 문학 비를 세웠는데, 쓰러져 있는 비석들은 당시 쓰러져간 희생자들의 모습을 의미한다. 문학 비 주변에는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방사 탑이 세워져 있다.



천장에 닿을듯한 4.3 희생자들의 명단

③ 애기무덤 - 조천읍 북촌리 북촌초 서쪽 200여m 지점

북촌리 학살 사건 당시 희생된 아이들이 묻힌 곳이다.



순이삼촌 문학비

제주 4.3



무등이왓



북촌 초등학교

당시 희생된 어른들의 시신은 이후 다른 곳으로 옮겨졌으나 어린아이들의 시신은 그 당시 임시로 묻힌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곳에는 현재 20개가 넘는 애기무덤이 있다.

④ 무등이왓 -서귀포시 안덕면

최초의 학살 터이다.

2003년 정부에서 쓴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4.3사건의 사망자가 25,000명에서 30,000명이라고 하지만, 굶어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사망자를 70,000명까지 셀 수 있다고 한다. 소설 순이 삼촌에도 나오는 애기인데, 4.3사건 다음해인 1949년에는 유독 밭에서 커다란 고구마가 눈에 띄었다고 한다. 그만큼 잔인했던 과거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⑤ 북촌 초등학교 -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481

1949년 북촌리 학살사건의 현장이다.

1954년 "아이고사건"의 현장이다. 마을 청년의 장례식 때 청년의 모교 앞을 지나며 추모하다가 주민들이 1949년 때의 학살을 떠올리며 아이고아이고 울었다는 사건이다. 이때 잡혀가서 경찰들에게 주의를 받고 이 이후로 주민들은 4.3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⑥ 첫알오름 양민학살, 첫알오름 탄약고유적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590-3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인 첫알오름 집단학살, 새벽시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집단총살은 일본군의 군사시설이었던 폭탄 창고에서 벌어졌다.

일제 강점기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본군의 군사시설의 흔적이 남은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은 4.3 유적지 중 하나로 현재는 학살터가 정비되어 위령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첫알오름 양민학살터

찾아가는 활동 2



제주 첫알오름 일제동굴진지



알뜨르 비행장의 격납고

⑦ 제주 첫알오름 일제동굴진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이 시설은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해군의 비행장 부속 시설이다. 당시 일본군은 모든 시설물들을 은폐·엄폐했으며, 지하에도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구축해놓고 있었다. 이 시설은 그러한 일본 해군의 방어준비 상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발견되고 있는 일본군 동굴 진지 중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 대규모의 보기 드문 지하 구조물로서 의의도 가진다.

갱도 내부는 거대한 동공 형태로 뚫려 있으며, 부분적으로 천정이 무너져 내린 곳도 있다. 주민들이 축사 또는 짓갈 숙성 장소, 기타 저장고 등의 용도로 일부 이용했었다. 입구는 축사로 이용되었던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막혀 있다.

갱도(동굴)진지는 입구가 6개이며 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대형이면서 미로 형이다. 진지 규모는 전체 길이가 약 1,220m 정도인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최대로 조사되고 있다.

⑧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알뜨르 비행장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알뜨르 비행장에 있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일본군 군사시설이다. ‘아래 별판; 이라는 이름을 가진 서귀포 대정읍의 아름다운 평야인 알뜨르, 일본은 일제는 2차대전 당시 제주도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격납고 20기를 건설하였다. 그 중 1기는 훼손되었고 19기는 현재까지 잘 보존이 되고 있다. 이 격납고는 제주도를 일본군의 출격기지로 삼으려는 것을 보여주는 지상 건축물이다.

제주올레 10코스가 지나가는 길에 위치하여 ‘남제주 비행기격납고’와 ‘알뜨르 비행장’ ‘첫알오름 양민학살터’ 등에서 우리 민족의 비극의 근.현대사의 현장을 통해 우리 역사의 과거와 미래에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2 4.3을 만나다



① 영화 <지슬>

오명 감독의 영화로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다. 화면은 흑백이고 제주도 출신 배우들이 제주도 방언으로 연기하기 때문에 화면 밑에 한글 자막이 깔린다.

-간단한 줄거리와 내용

제주도 사람들은 해안선 5km밖 모든 사람을 폭도로 여긴다는 소문을 듣고 삼삼오오 모여 피난길에 오르는데, 영문도 모른 채 피신한 마을 사람들이 감자를 나눠먹으면서 소소한 가정사를 나눈다.

제주 4.3 사건을 알아보기 전이나 제주도에 놀러가기 전 꼭 봐야할 영화라고 생각한다.



② 책 <순이삼촌>

1978년 9월 계간 문학비평지 《창작과 비평》에 발표된 현기영 작가의 중편 소설이다. 1949년 1월 16일 제주도 북촌리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 출신의 작가 현기영은 그 학살현장에서 어렵게 살아난 순이삼촌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보여주며, 4·3사건의 참혹함과 그 후유증을 알리고 동시에 30여 년 동안이나 묻혀 있던 사건의 진실을 문학을 통해 세상에 알렸다.

줄거리는 이렇다.

제주도를 떠나 서울에서 지내던 나는 할아버지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8년 만에 고향인 제주 서촌마을을 방문한다. 거기서 나는 순이 삼촌(제주에서는 촌수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어른을 남녀 구분 없이 삼촌이라 부른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30여 년 전의 참혹한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순이 삼촌은 작년 한해 서울의 우리 집에 와서 식모노릇을 하던 분이다. 그녀는 아내와 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제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녀를 데리러 온 사위 장 씨로부터 순이 삼촌에게 환청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순이 삼촌은 몇 년 전에 이웃집에서 메주콩을 잃어버린 일로 시비가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웃사람이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자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바람에 범인으로 오해받으면서 환청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찾아가는 활동 2

순이 삼촌의 파출소 기피증은 30여 년 전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0여 년 전 그해 음력 12월 19일 국군에 의해 학교운동장에 소집된 마을사람들은 자세한 영문도 모른 채 무참하게 참살 당했다. 군경 측의 무리한 작전과 이념에 대한 맹신이 빚어낸 비극적 사건이었다. 그 학살현장에서 두 아이를 잃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순이 삼촌은 그 후 경찰에 대한 심한 기피증이 생겼고, 메주콩사건으로 결벽증까지 생겼으며, 나중에는 환청증세도 겹치게 된 것이다. 평생 그날의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순이 삼촌은 자식이 둘이나 묻힌 그 옹골밭에서 사람의 뼈와 탄피 등을 골라내며 30년을 과부로 살아오다가 그날의 일을 환청으로 듣게 되고, 마침내 그 살육의 현장에서 평 약을 먹고 자살을 하게 된다. 나는 마을사람들이 30년이 지나고도 그 일을 고발하지 못하는 것은 심한 레드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한 달 전에 자살한 순이 삼촌의 삶은 이미 30여 년 전의 시간 속에서 정지해버린 유예된 죽음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도 영화 지슬과 함께 봐야할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③ 알기쉬운 영상자료찾아보기

- 1) 5분으로 배우는 4.3사건- 시리얼
- 2) KBS TV 설민석 강사가 들려주는 역사특강 ‘2018 제주4.3사건 70주년 우리가 몰랐던 제주이야기’

④ [제주 4.3 사건 생존자 인터뷰]

"아저씨, 아줌마, 언니, 오빠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어" 위드인뉴스 2017.04.04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7039772&volumeNo=7043033>

[제주 4.3 사건 생존자 인터뷰]

"아저씨, 아줌마, 언니, 오빠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어"

단순 활자로 제주 4.3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더욱이 역사를 기술하는 단순 시간 나열 구조는 4.3사건 당시 제주도민이 겪었을 공포와 살아남은 자의 아픔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이에 몇해전 우연한 계기로 대화를 나눈 구좌읍 송당리 고순선 어르신과의 4.3관련 대화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덧붙인다.

"4.3대 진짜 많이 힘들었지. 많이들 죽기도 했고 말야"

이제 나이가 먹어서 옛날일은 가물 가물하지만 4.3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내가 어릴때

였어. 처음엔 무슨일인지 잘 몰랐지.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게 4.3이었구나 하지 그때는 그냥 무슨일인지도 모르고 공포에 벌벌 떨어야 했어. 무장대들과 진압대의 총돌이며 일반 시민의 학살 등은 잘 모르지만 굉장이 무서웠고 공포스러웠다는건 지금도 기억해. 사람들 중 대부분이 죽어 나갔고 저녁이면 산 중턱에 숨어 있던 무장대들이 마을로 내려와 음식을 비롯한 모든것을 노략질 해가는 통해 무서워서 살수가 없었지.

사건 당시 어린나이였던 우리들은 마을 입구 어귀에 서서 무장대들이 마을로 내려오는지를 지켜보는 일을 맡았어. 저 멀리 무장대들이 마을로 내려오는게 보이면 어른들한테 말해서 바로 경계태세를 취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

매써 가꾼 농작물이 썩대밭이 되고 집이며 밭은 불에타 싸그리 사라지고, 지금은 당오름이나 아부오름의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있잖아? 옛날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어. 무장대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며 군경들이 모조리 베어 버렸지. 그래서 그냥 행한 민둥산이었어. 4.3이 끝나 나무를 다시 심기 시작해서야 겨우 지금의 모습이 된거야. 그러니 얼마나 오래전 일이겠어. 하나도 없던 나무들이 다시 무성하게 자랐으니...하지만 아직도 그 기억은 어제일 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어. 아주 생생히.

아무튼 우리 송당은 산중턱에 있어서 4.3때 더 많은 피해를 입었던것 같아. 우리 마을 인근에 있는 다랑쉬 마을은 특히나 더 했지. 다 높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이 벌벌 떨려. 결국 무장대들의 난동과 진압대간의 싸움으로 피해를 입는 통해 당시 우리마을 사람들은 몇달간 해안가로 대피해서 살았어. 집도 절도 없이 떠나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왜 그 수수 있잖아? 수수. 그 수수나 피 같은걸 타작하면 알갱이가 나오고 자연스레 껍대기 같은게 생기는데 그 껍대기로 연명하며 지냈어. 진짜 굶주리고 배고픈 시절이었지. 그렇게 어찌 어찌 연명하다 보니 사태는 조금씩 진정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그런데 막상 가보니 마을이 아주 난장판이었어. 여기 저기 불탄 집 투성이에 정성들여 키운 농작물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싸그리 사라진 후였고, 해안가로 피난올 때 수레를 갖고 있던 사람은 그나마 수레에 갖고 있는 짐을 모두 실어서 내려갔지만 우리는 그런게 없어서 달랑 붓집 한개만 들고 정신없이 피난 갔었거든. 식량이며 가재도구를 집에 두고 갔었는데 돌아와보니 건질게 하나도 없었지.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날 이후로 보이지 않게 되기도 했고 말야. 몇 달전까지만 해도 한동네에서 얼굴 보며 지내던 아저씨, 아줌마, 언니, 오빠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었지. 4.3은 그런 사건이야. 한집 건너 한집꼴로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임영섭 withinnews@gmail.com

찾아가는 활동 3

광주 민주화운동

“

우리네 오월에는 목련꽃 보다 더 하얗고 순결한 영혼,
영혼들이 꽃잎처럼 아프게 떨어진 것을.....

”

- 〈목련이 진들〉 노랫말 중에서-

군사 정권을 반대한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발생 배경

1980년 5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79년은 대한민국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는 박정희 정부에 대항하는 부마항쟁이 발생하였고, 그 얼마 후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 부장)가 박정희를 피살하는 10.26사태가 일어났죠. 그리고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며 계엄령을 선포하고 집권을 꿈꿉니다. 하지만 전두환의 집권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박정희가 집권하는 오랜 시간 동안 독재를 겪은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12.12 군사 반란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신군부의 집권으로 인해 더욱 후퇴하고 억압될 것을 우려하여 민중운동 세력들은 이를 저지하게 위해 민주화 운동을 전개합니다. 10.26사태 이후부터 다음 해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5월 17일 사이 벌어진 민주화 운동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운동들은 1980년 5월 초에 절정에 이르러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집회와 시위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죠.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로 5월 초부터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의 주도로 비상계엄 철폐를 촉구하는 시국성토대회가 연일 개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5월 14일부터 광주 도심으로 진출하였고 시민들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민족 민주화성회'로 불리던 이러한 집회와 시위는 다른 지역들은 시위가 조금 잠잠해진 5월 16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5월 16일 집회를 해산하면서 학생들은 18일 오전 전남대 정문으로 집결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시위가 확산되어가자 전두환은 치밀하게 군사쿠데타를 준비합니다. 이 쿠데타가 5월 17일에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5월 14일부터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집회와 시위를 진압할 계획을 현실화하였고, 17일 오후 7시에 공수부대를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신군부는 5월 17일 밤 '비상계엄이 18일 자정을 기해 전국으로 확대되었음을' 발표하며 국회를 해산시키는 한편, 야당의 핵심인사들을 체포하고 전국에서 대학생과 재야인사(공직에 나가지 않고 민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연행하기 시작합니다. 광주에서도 5월 18일 자정부터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었죠. 또 언론사와 방송국처럼 광주 시내의 주요 기관에 군인들이 투입됩니다.

과정

5월 16일 했던 약속대로 5월 18일 학생들은 전남대 정문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300여명의 학생들은 강제적 휴교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에 주둔한 계엄군이 학생들에게 해산을 권하면서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첫 충돌이 발생한 후 계엄군의 진압을 피해 도심으로 진출한 학생들은 시민들에게 계엄 확대와 계엄군의 만행을 알렸습니다. 군인들은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폭력을 가했고 무차별 연행하였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노인, 부녀자, 회사원, 노동자, 학생, 회사원을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계엄군에 맞섰고, 도심은 점점 전쟁터로 변해갔죠. 군부대가 추가로 투입되며 계엄군은 계속 늘어났고 총까지 사용하여 사상자는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시위대는 계엄군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 무력에 맞서기 위해 전남 지역으로 진출하여 무기를 획득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 뿐 아니라 전남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기를 얻게 된 시민들은 '시민군'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마침내 5월 21일 시민군은 계엄군을 후퇴시킴으로써 27일까지 '민중차차'가 실현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민군은 광주의 치안과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시민들은 시민군과 시위대에게 음식물과 생활용품을 가까이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작전을 개시하여 전남도청을 다시 점령함으로써 종결됩니다. 시민군 중 다수가 도청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찾아가는 활동 3

경과

18일

- 오전 학생들 시위 시작 - 광주역 재집결, 시위
- 오후 1시 공수부대원의 무차별 진압작전, 부상자 속출
- 오후 4시 시위대, 파출소 파괴 등 적극 공세

19일

- 오전 일시적 소강상태
- 오후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 시위 점차 격화
- 오후 4시 50분 시민들에게 포위된 계엄군의 장갑차에서 최초 발포
- 밤 시위가 산발적으로 계속됨

20일

- 도시빈민과 노동자들도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
- 계엄군에게 실탄 지급, 양측에서 사상자 발생
- 오후 대규모 시위 시작
- 오후 6시 택시와 버스 운전기사들이 모여 대형버스와 트럭을 앞에서 금남로 집결
- 계엄군을 몰아내는 데 중요한 계기 제공
- 도청과 광주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시민의 손에 장악
- 밤 11시 시위 군중을 향해 집단 발포

21일

- 오전 전날 밤 충돌로 무장의 필요성 느낀 시민, 공장에서 장갑차와 군용차량 탈취
- 정오 계엄군 도청에서 시위대에게 조준 사격
- 오후 1시 시민들 광주 인근 지역에 진출하여 무기 탈취, 농민도 시위에 참여
- 오후 3시 시민들에게 무기들이 지급되어 계엄군과 시가전 발생 - 무력항쟁으로 전환
(시가전: 도시와 같은 거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투)
- 총격전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
- 오후 5시~8시 계엄군 광주에서 외곽지역으로 퇴각

22일 ~ 27일

- 시민군 자치활동 수행
- 매일 오후 2시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 개최 - 투쟁목표 재확인

27일

- 새벽 외곽도로 봉쇄, 무장한 2만 5000여 계엄군의 대대적인 무력진압
- 오전 5시 22분 도청 내 시민군 전원 연행
- 아침 7시 30분~밤 10시 50분 가택수색 실시
-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연행



- ① 망월동 공원묘지, 국립 5.18 민주묘지
- ② 5.18 자유공원
- ③ 구 전남도청, 5.18 민주평화기념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 ④ 민들레 소극장

광주광역시 가는 방법

고산에서 광주를 다가용으로 가는 길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약 1시간 25분 / 114.70km)

삼봉로(8.1km) > 호남고속도로(93.2km) > 제2순환도로(5.6km)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1) 고산 출발 > 버스 535 (고산농협) > 버스 337 (기린중) > 동산동우체국 정류장
고속버스(약 1시간 10분) 호남제일문정류소 승차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하차

2) 고산 출발 > 버스 535 (고산농협) > 버스 79 (전주역첫마중길) >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시외 버스(약 1시간 30분)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승차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하차

1 광주에 다녀오기 전에 보면 좋은 영화



①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는 1980년 5월, 광주. 광주에 사는 택시기사 민우(김상경)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끄찍이 아끼는 동생 진우(이준기)와 둘이 사는 그는 오직 진우 하나만을 바라보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 진우와 같은 성당에 다니는 간호사 신애(이요원)를 맘에 두고 사춘기 소년 같은 구애를 펼치는 그는 작은 일상조차 소중하게 느끼며 소소한 삶을 즐기는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 무고한 시민들이 총, 칼로 무장한 시위대 진압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다. 눈 앞에서 억울하게 친구, 애인, 가족을 잃은 그들은 퇴역 장교 출신 홍수(안성기)를 중심으로 시민군을 결성해 열흘 간의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화려한 휴가 속의 인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실제 활동했던 인물들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인물을 알고 있다면 더욱 의미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② 택시 운전사

택시운전사는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전시관에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거리 : 택시운전사의 내용은 택시운전사 만섭(송강호)은 외국손님을 태우고 광주에 갔다 통금 전에 돌아오면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는 거금 10만원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자 피터(토마스 크레취만)를 태우고 광주로 향한다. 광주로 들어서는데 길에 만섭의 기지로 검문을 뚫고 겨우 들어가게 된다. 광주의 모습은 매우 위험해 보이고 만섭은 피터에게 다시 서울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피터는 대학생 재식(류준열)과 황기사(유해진)의 도움으로 촬영을 시작하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만섭은 집에 혼자 있을 딸이 걱정되어 초초해지기 시작한다. 결국 집에 혼자 둔 딸 걱정 때문에 잠든 위르겐 몰래 서울로 향하는 김만섭. 그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신문을 읽게 된다. 그가 본 광주의 진실과는 다르게 신문에서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위르겐을 어떻게 해서든 서울로 데려가 광주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광주로 향한다.

2 광주에서 다녀와봐야 할 5.18 관련 장소들



국립묘지가 생기기전 희생자 안장

① 망월동 5.18 묘역(5.18 사적지 제 24호)

망월동 5.18 묘역(구묘역)은 운정동 5.18 국립묘역(신묘역)이 생기기 전까지 5.18 희생자의 유해들이 묻혀졌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5.18 희생자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임시로 망월동의 광주시립묘역 3구역에 안장하였고, 그 후 생겨난 국립묘역에 유해들을 모셔져 안장되었지만 상징성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찾아가는 활동 3



광주민주항쟁을 기리는 곳

② 국립 5.18 민주묘지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공원으로 5·18묘역이라고도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5.18 민주항쟁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5.18 희생자 묘역을 민주 성지로 가꾸려는 움직임이 뜻있는 국민들로부터 일어났다.

묘역 안에는 5·18영령의 묘 764기(2017년 기준)가 있으며, 건축물 7동(민주의 문, 유영봉안소, 역사의 문, 승모루, 추념문, 관리동, 휴게실)과 역사공간, 민주광장, 참배광장, 전시공간, 상징조형물, 광주민주화운동추모탑, 7개 역사마당(의병, 동학, 3·1운동, 광주학생운동,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통일마당), 현수기념비, 준공기념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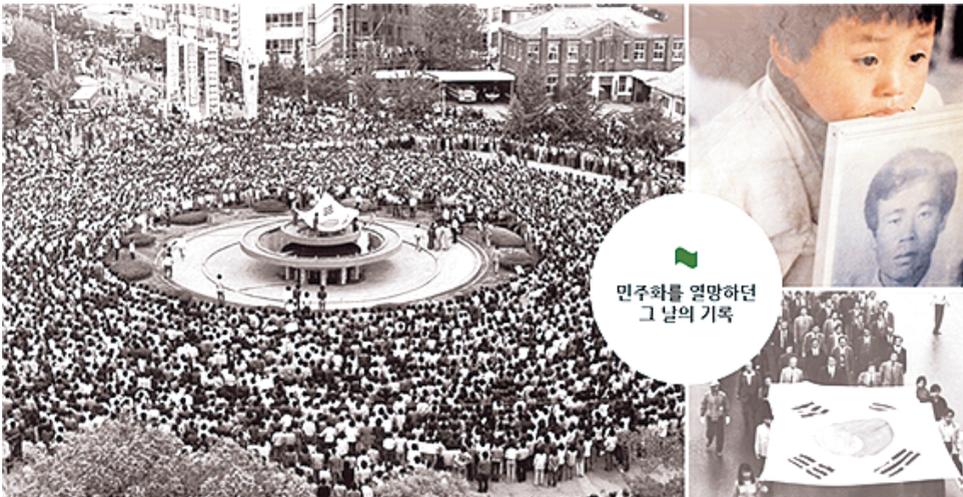
민주화운동당시 희생자들이 조사받은 곳

③ 5.18 자유공원

5.18 자유공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희생자가 생긴 곳입니다.

공원 안에 있는 자유관에는 각종 자료사진과 영상등이 전시되어있습니다.

야외 전시 시설에는 헌병대가 사용했던 건물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구속자들이 군사재판을 받았던 법정의 모습등 그 당시의 모습이 재현되어있고 설명이 적혀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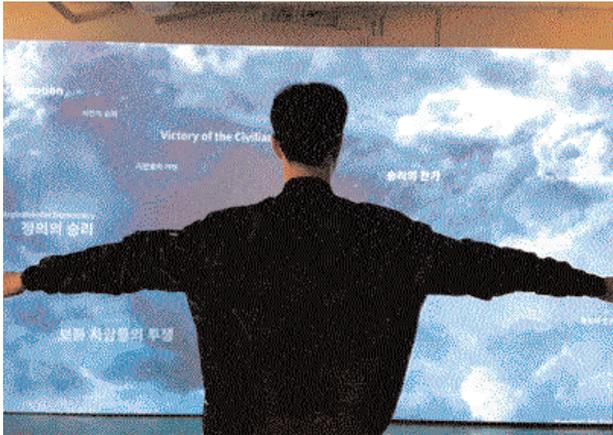
5.18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설립

④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5.18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13일 옛 광주카톨릭센터에 설립된 곳이다.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1층부터 3층까지는 항쟁 5월의 기록, 인류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5.18 민주화운동과 세계기록 유산을 소개하는 상설전시관이 있고, 4층에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5층은 기록보존을 위한 수장고로 활용되고, 6층은 윤공희 전 천주교 광주대교장 의 집무실을 재현해 놓았다.

찾아가는 활동 3



옛 전남도청은 5.18민주평화기념관으로 바뀌어 공개되었다.

최후의 전투가 벌어져 5.18역사의 중심

⑤ 옛 전라남도청(5.18 사적지 제 5호), 5.18 민주평화기념관

5.18민주화운동의 마지막이었던 광주 재진입 작전으로 인한 최후의 전투가 벌어진곳으로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한달간 시민개방을 하였고, 그 이후 옛전남도청이 5.18 민주평화기념관으로 복원이 되어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소극장은 광주민주항쟁을 주제로 한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시민의 성금으로 문열어 '민주항쟁' 주제 연극 상연

⑥ 민들레소극장

극단 토박이의 전용극장으로 1995년에 개관한 극장입니다.

민들레 소극장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지역민의 정서에 부응하는 공연을 합니다. 광주민주항쟁과 지역문제 중심의 연극도 여러작품이 있습니다.

극단 토박이의 오월레파토리

오월레파토리는 광주민주항쟁을 주제로 하는 연극입니다.

오월레파토리의 세번째 연극은 '청실홍실', 네번째 연극으로 '오!금남식당'이 있습니다.

5월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에서 11월까지 공연을 하니 공연 일정은 극단 토박이 다음 카페를 참고하여 주세요

청소년인 우리도 직접 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비용도 매우 저렴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의 포인트가 있으며 그 당시의 느낌을 더욱 생동감있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5월의 광주를 찾아가신다면 오월 레파토리 연극관람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기사

서울신문 2018-12-13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 민중 가요로 널리 울려 퍼진다

동남아선 민주화운동 상징곡처럼 등장
2022년까지 표준 가사 마련해 번역·배포
창작뮤지컬 등 문화콘텐츠 제작·보급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민중가요로 자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세계 민주주의 상징곡으로 거듭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비 9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곡을 기반으로 전 세계 인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보급, 글로벌 브랜드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3억원(국·시비 각 50%)을 투입한다.

시는 우선 '임을 위한 행진곡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고 2020년 5·18 40돌을 기념해 국내외 순회공연을 추진한다. 또 홍콩·대만·중국·캄보디아·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국가별로 제작각 불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어 2022년까지 표준 가사를 마련하고 가사와 배경, 과정 등을 세계어로 번역해 배포한다. 이 밖에 아시아, 유럽 등 민중가요 분야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카데미, 워크숍 등 국제학술행사도 추진한다.

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를 위해 올해부터 관현악곡 제작, 국내외 연주회 개최, 창작 관현악곡 작품공모 등을 진행해 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월 광주의 고통과 시민의 결연한 의지를 녹인 민주화의 상징 노래로 불려 왔다.

5·18 때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항쟁 마지막날인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를 맞은 윤상원과 지역 노동운동가 박기순(1978년 사망)의 '영혼 결흔식'(1982년 2월)에서 처음 등장했다. 소설가 황석영이 통일운동가 백기완의 장편시에서 일부를 차용해 가사를 썼고, 전남대 출신 김종률이 곡을 붙였다. 이후 '5월 투쟁' 과 시위 현장에서 으레 등장했다. 태국·말레이시아·대만 등 동남아 곳곳의 민주화 운동에서도 불리면서 세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노래로 여겨졌다. 보수정권 시절 5·18 기념일마다 참석자 제창 여부를 놓고 술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주YMCA 2017년 7월 회보

○ '다시 찾은 민주주의, 기쁨의 오월길로 맞이하다'

전주YMCA 청소년회원 5·18평화순례 참여

지난 5월20일 전주YMCA 청소년 회원 40여 명이 1980년 5월을 기억하고자 광주를 찾았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신화한 5월 열사들을 참배하고 5월 광주정신을 배우고자 망월동 5·18 묘역 참배와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연극 '창실홍실'을 관람하며 회원들 간의 공동학습의 장을 마련했다.

● 5·18평화순례 참가기 | 김영주 청소년회원

선생님! 오늘 활동이 자기 전까지 너무 생각나고 뜻 깊었던 시간이었어요. 어제 지구시민학교에서 봤던 동영상들부터 오늘 구묘역 신묘역, 연극까지 하나하나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작년에

는 레드페스타축제도 참여하고 기념관도 갔었지만 솔직히 와 닿는 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웬지 모르게 더 의미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요새 뉴스랑 기사도 잘 챙겨보거든요. ㅎㅎㅎ헤 그계 정말 맞는 것 같고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도 꼭 관심을 더 갖고 싶고 노력할려구요!!

오늘 연극관람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이런 일들이 선생님과 함께여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ㅎㅎ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어제 제가 갈 수 있도록 애기해 주신 것도 감사드려요. 내년에도 꼭 같이 가요. ㅠㅠ!!♡ 그리고 오늘 자기소개도 마음먹고 있었어요. ㅎㅎ 다음에는 할 수 있어요!



찾아가는 활동 4

전주 촛불집회



1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고산 미래학원 임민희 선생님

- 현재 완주군 고산 미래학원 원장 선생님
- 고산 미소 시장에서 세월호 집회,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 등을 할 때 학원생들을 데리고 참여하기도 하였다.
- 전주 관동로 촛불집회에도 참여하였다.

“촛불이 승리했을 때 세상을 얻은 기쁨”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계기 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었나요?

‘이대로는 큰일 나겠구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참여하였습니다.

자신의 참여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 또는 자신의 모습)
일단 대통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촛불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를 태워 주위를 밝히는 희생과 사랑’ 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이 승리했을 때 무슨 기분이 들었나요?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었습니다.

바라는 국가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제발 밥그릇 가지고 싸우지 말고 더 넓고 깊게 생각하며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관동로 촛불집회 김제동의 만민 공동회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밤 사진

양준화 전국의제21 사무총장님

-전 전북의제 사무총장

-현 전국의제 사무총장

“밝은 사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생겨”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계기 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민단체들과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덕분에 주위의 사람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뉴스를 통해 촛불집회가 서울과 전주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기로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촛불집회에 참여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지도자의 무능함과 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에 화가 나고, 정치의 기본이 무너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서 자라나는 청년세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참여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 또는 자신의 모습)

집회에 여러 번 참가했었는데요. 처음 참가했을 때보다 다음 집회에 더 많은 시민이 참가하게 되어 그 시민들에게 자극과 용기를 준 것 같고요.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발표되었는데 집회를 거듭하면서 국민의식이 점점 변하는 것이 느껴졌고, 촛불집회의 규모도 커지고,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게 되는 과정까지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특히, 정치인들이 국민의 힘을 무서워하게 되고, 국민들도 스스로의 힘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서울의 광화문이 있었다면 전주의 충경로 사거리에 의미를 부여해주신다면?

오래전부터 전주의 충경로 사거리는 우리 지역의 민주화운동의 활동 주 무대였었는데요. 이번에도 주춧 측에서 문화적인 측면과 청년 감성을 함께 생각해 방향을 잘 이끌어주었다고 생각해요. 충경로 사거리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생활하는 시민들에게는 교통 불편이 당연한 데도, 이번에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함께 지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버스나 승용차에 타고 있거나 기다리거나 걷는 시민들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주 관동로 촛불집회 촛불



찾아가는 활동 4

촛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촛불은 어둠에 굴하지 않는 깨어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눈에 띄듯이, 촛불 시민은 한두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 작은 촛불이 나중엔 십만 개, 백만 개가 모여지면서 암울한 상태의 나라에 희망의 빛을 밝힌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촛불' 이 승리 했을 때 무슨 기분이 들으셨나요?

우리가 집회에서 함께 불렀던 노래 중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회가 일시적으로 어둠이 몰려올 때가 있지만 우리 안에 정의로운 마음의 불씨가 있다면 언젠고 다시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고, 국민들과 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동료의식이 들었고요. 그 이후로 일상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는 고단한 일을 마치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라는 국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제적인 최소한의 자립,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투명하고 긍정적인 제도를 갖고 국민들이 더불어 잘살겠다는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꼭 필요한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잘하는 나라, 준비를 못 하면 기회라도 남겨두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고산고등학교 3학년 강진석

- 현 고산고등학교 3학년 학생

- 전 고산고등학교 전교 회장

“정의로운 국가 만든 역사 참여에 감격”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계기 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살려고 발버둥 쳐보지도 못하고 제자리 대기하란 방송 때문에 죽임을 당한 아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참여하였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었나요?

비슷한 나이였기에 친구의 마음으로 참여했었고, 죽은 아이들 부모 자식의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자신의 참여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 또는 자신의 모습)
지금은 학생으로서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런 학생들이 먼 미래에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아갈 때, 그게 정치가이든 기업인이든 자영업자이든 아티스트든 농업인이든 그들의 위치와 돈의 차이는 달라도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각자의 위치에서 선한 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혼자라면 작은 촛불에 불과하지만, 그 촛불들이 모이면 큰불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폭력 없는 시위.

'촛불' 이 승리했을 때 무슨 기분이 들었나요?

국민의 힘으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든 역사에 참여했다는 희열감과 감격스러움이 느껴졌고, 미래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는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라는 국가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1. 의, 식, 주를 보장해줄 수 있는 국가.
2. 모두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국가.
3. 수능에 얽매이지 않는 국가.
4. 대학을 가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

김요셉 선생님

- 울국교회 중고등부 선생님
- YMCA에서 제주도 갈 때 함께 갔었다.
- 울국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전주 관통로 촛불 집회에 함께 참여

“나부터 바뀌면 세상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계기 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뉴스로만 국정농단 사건을 접하다가 지역의 어른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촛불 집회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에 꼭 함께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활동 4

어떤 마음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었나요?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시대를 지난 후 태어난 세대로써 그동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 크게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고 또한 현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부모님 세대의 젊은 시절 나라의 미래를 위해 투쟁했던 그 시절 그때보다 못하겠지만 촛불집회라는 평화시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올바른 모습을 되찾는 것에 동참하고 싶었고 또한 지나고 보니 그때의 촛불시위 정말 위대했던 순간이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참여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 또는 자신의 모습)
그때는 작은 촛불 하나일 뿐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작은 촛불이 모여 박근혜, 최순실을 몰아내고 법정에 세웠으며 제가 같이 가자고 설득했던 사람이 그 이후로 촛불집회와 이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반자, 저의 친구가 되었고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를 바꿔 놓았고 그렇게 나아가 갈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저 또한 촛불집회를 경험하면서 우리 행동이 중요함을 느꼈고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능력,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촛불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국민들의 마음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투쟁이었습니다.

'촛불' 이 승리했을 때 무슨 기분이 들었나요?

나 하나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지냐는 말을 너무 많이 듣던 세상 속에서 나부터 달라지고 나부터 깨우치고 나부터 행동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학생과 청년들에게는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민주화운동 이후로 평화로운 것 같은 세상이었지만 실상 사회에는 아직 변화를 이뤄야 할 것이 많고 무엇보다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필요하고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바라는 국가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국가에게 바라는 것은 국가가 국가다운 역할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크게 바



고산 미소 시장 촛불집회



전주 촛불집회



라는 것은 없습니다. 청렴한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어 주는 것,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데 나라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방해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바랄 뿐입니다. 나라가 잘 살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신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이라는 것보다는 부정부패하고 도둑질하는 정치인, 기업인들을 벌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나라가 발전하는 길이고 그것이 국민으로서 바라는 점입니다.

고산고등학교 2학년 이수현

- 현 고산고등학교 2학년 학생
- 전 고산고등학교 부회장

“나라의 많은 문제 해결 이제가 시작”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계기 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는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14살,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사건을 접해보지도,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어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촛불집회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계기는 세월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었나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더욱 와 닿았고, 그 박근혜 정부는 이를 기피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들,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의 입장에서 이 집회에 참여하고, 이 집회를 통해 꼭 이 대통령을 끌어 내릴 때까지는 계속 참가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는 생각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목표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참여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 또는 자신의 모습)

저의 집회 참여로 우선 주변 친구들이 정치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더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였

찾아가는 활동 4

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어른스럽게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집회에 참여할 의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의 의식도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의식이 성장해서 국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촛불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촛불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촛불이 국민들의 의식과 목소리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3번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촛불들로부터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촛불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식, 목소리 하나하나를 표현해주는 것이 '촛불' 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이 승리했을 때 무슨 기분이 들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 장면을 학교에서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탄핵이 확정되었을 때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환호성을 지르고 다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부터가 정말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 특히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즉 '촛불'이 승리했을 때의 기분은 나쁜만이 아니라 모두가 겪었던 감정이니깐 다들 어떤 기분인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국가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는 깨끗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시각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비리도 없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국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면에서 바라는 점이 많은데, 대학 입시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교육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고 자살하는 학생 수도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깊게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고쳐 나갈 방안을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경향신문 2016-11-03

촛불 그후 1년

“박 대통령 퇴진하라” 들불처럼 번지는 시국선언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전북대와 전주교대 교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들도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전북지역 민심이 옹호되고 있다.

전북대 교수들은 3일 오전 10시 50분 대학본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 사유화와 최순실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최고 공직자인데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측근들과 비선실세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도록 방조했다”면서 “무능하고 자력없는 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취임후 세월호 대참사때 재난대응을 하지 못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등의 정책결정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소동을 거부 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참담한 것은 이러한 배후에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최순실 사태라 말 할 수 없고 무능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공적인 조직마저 외면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행위며 그 주범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면서 “국회는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시민들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 공동시국선언이 풍남문 광장에서 열렸다. 시민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정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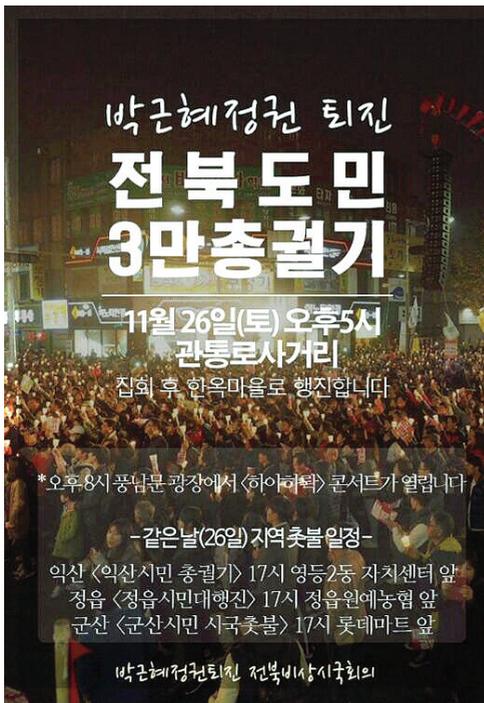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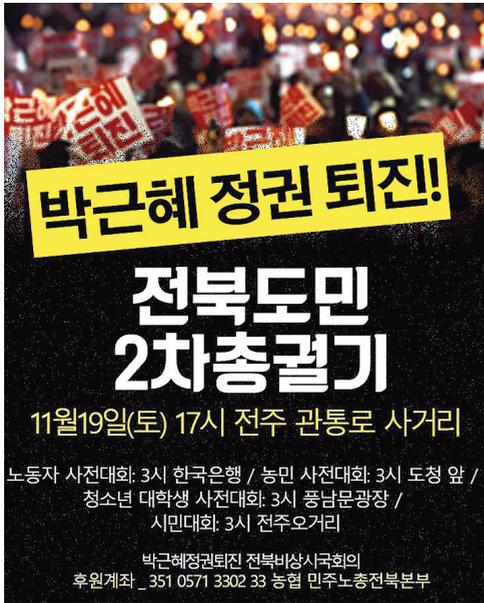
오전 11시에는 익산시민 시국선언이 익산시청에서 열렸고 전북기자협회와 민언련 등 전북지역 언론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 “최순실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게이트다.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고 새누리당은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전주교대에서는 교수들과 예비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함께 했다. 전주교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4시 시국성명을 갖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학생 300여명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지켜본 뒤 대학에서 풍남문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학생들은 풍남문광장에서 시국성명을 채택했다.

오후 7시에는 전주YMCA 강당에서 기독교인 비상시국회의가 열렸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매일 오후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북시국회의는 5일 오후 5시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으로 보는 전주촛불집회 이모저모



전주YMCA는 집회장소에 나온 시민들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제공했다

모이자! 관통로사거리로!
 촛불승리를 위한
 17차 도민총결기의 날
 “촛불승리
 먹거리 오병이어 나눔 잔치”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오전 11시 현재선고 생중계
 ; 객사 농성장
 3.10 (금) 오후 6시 30분 관통로사거리
 박근혜정권 퇴진
 전북기독 행동 후원계좌 전북은행 503-13-0417583
 (재)전주기독교청년회 T.063.272.4466

촛불 승리의 날
관통로사거리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신한일보 2016-12-11

'국민 승리의 날'...전북 촛불집회 축제의 장'

'제5차 전북도민 민중총결기' 집회 측 추산 7000명(경찰추산 5000명)의 시민 참석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튿날인 5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축제를 방불케 했다. 거리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촛불을 든 시민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이날 전북 전주 관통로에서 열린 '제5차 전북도민 민중총결기'에는 집회 측 추산 7000명(경찰추산 50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전날 박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전 집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든 시민들은 환한 표정으로 국회의 탄핵 가결을 반겼다. 시민들은 '국민이 승리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등을 외치며 촛불로 밤하늘을 수놓았다.

행사가 막바지로 이어질 수록 흥분의 목소리는 더해갔다. 시민들은 오후 7시 정각에 맞춰 진행한 '촛불 소등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빛이 어둠을 이겼다고 자축했다.

꺼진 촛불이 다시 밝아지자 팽과리와 북, 장구를 든 풍물패가 등장했다. 풍물패는 흥겨운 연주로 탄핵 가결의 기쁨을 알렸다. 일부 시민은 흥겨운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풍물패는 연주를 잠시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라고 적힌 종이를 불태우며, 검찰과 특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시민들은 종이 불태워지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자리에서 일어난 시민들은 풍물패 장단에 맞춰 행진을 시작했다. 촛불 행렬을 본 시민들이 잇따라 행진에 동참하면서 줄은 점점 더 길어졌다.

행진에 참여한 김민선(29씨)은 "은 국민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탄핵안 가결 소식을 듣자마자 친구들과 환호성을 질렀다. 오늘은 마음껏 기뻐하고 싶어서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오게 됐다"며 촛불을 번쩍 들었다.

박호성(41씨)은 "탄핵을 반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다. 아직 대통령이 완전히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역사의 죄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금의 기쁨에 취하지 말고 앞으로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시국회의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히며 박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도민들과 시국 촛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관홍,신금섭 기자 sinnews7@shinhanilbo.co.kr

2018년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 **방향** 프로젝트

**우린 다르게
가기로 했다**

고산고 YMCA